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연구: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의 관계 탐색을 중심으로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요 약

본 논문은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모색」이라는 선행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해당 연구 문제에 대한 실제적 아이디어 탐색과 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미술과 삶의 관계성은 미술교육의 주요한 연구 지점이 되고 있다. 미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미술교육 연구와 실재는 보편적인 것이라 인식하지만, 실제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 그리고 감상자의 삶을 연계시킨 수업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과 삶의 관계를 추구하는 미술교육의 실재에 다가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00 대학의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겨울 진행한 미술 수업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 결과는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탐색을 위한 미술과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적용 아이디어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 연구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미술과 삶(art and life), 미술 감상(art appreciation),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humanistic value of art education), 성찰(reflection), 삶에 대한 탐구(inquiry into life)

서언

미술작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긴 응시의 과정과 면밀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술작품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될까? 미술작품은 고상한 취미, 잃어버린 사실과 기억들의 회상과 기록, 거창한 사회적 담론의 소통, 인간 이성과 감성의 재현과 표현, 추상적 형식들에 대한 섬세한 미적 감수성, 창의적인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이나 표현방법의 탐색 등과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모든 교육적 노력이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추구하는 미술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은 이미 보편적이다. 하지만 삶이 미술작품을 낳고, 미술작품이 삶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

는 왜 미술과 삶에 대한 학습을 암묵적인 수준에서 당연시해야만 하는 것일까? 미술 교육의 전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선행연구는 미술 감상 학습이 삶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상관됨을 보여준다. 연구 내용은 대부분 이론적 수준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미술 감상에 있어 작품에 대한 상호적 이해를 삶의 근간과 연결시키고 있다. 김창식·이재영(2007)은 작품과 감상자의 교호 작용을 강조한 나단 노블러(Knobler, 1980)의 아이디어 적용법을 살펴봄에 감상 학습에서 감상자의 삶에 관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관된 학습 자료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정애(2015)는 펠드만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미술을 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미술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해 학습을 제안한다. 이는 미술을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애(2015)가 소개한 미술사 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에 근거해서 백운소(2018)는 배경적 해석, 역사적·맥락적 서술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일생과 시대상을 살펴보는 활동이 효과적임을 살펴본다. 김수진(2019)은 “미술사적 정보와 관람자가 생성하는 의미가 협상”된 결과 미술 감상 수업의 주제가 생성됨을 보여준다(p. 109).

둘째, 미술 감상에 있어 작가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 이미정(2018)은 현대 미술 감상에 있어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이에 대한 정서적 공감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사라(2018)는 대화 전략을 활용하여 감상자 내면에 대한 탐색과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대화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품과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하기 형식으로 풀어간다. 이지연·강주희(2018)도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가와 작품 탐구를 통한 감상 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작품 감상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원영미(2016)는 질문지와 대화법을 활용해 작품과 감상자 간의 상호 교감을 강조하는 감상자 주도적 미술 감상 방안을 탐구한다. 작품과의 대화를 통한 감상자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이들 연구는 미술 감상 학습의 목적을 삶에 대한 이해에 두고 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작가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감상자 주도적인 미술 감상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이재영, 2012; 2014; 2015; 2016; 2019a)의 주장이 미술 감상 학습의 목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미술 감상 학습에서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구체적 실행 연구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실행 연구를 이끌 실제성 있는 연구가 미비하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이재영, 2019b)는 이런 고민의식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장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 과정을 남겨둔 상태여서 실행

을 위한 다양한 실제적 연구 모색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미술가의 삶과 그들의 작품 간의 긴밀성을 포착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삶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는 실제적 미술 감상 학습법 탐색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미술과 교수학습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대안적 접근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동일 목표 의식을 가지고 2019년 겨울 진행된 한 교육대학원 미술교수학습 방법론 시간에 진행된 수업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 과정과 산출된 결과물을 제시한다. 산출된 결과물은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의 관계성,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미술 감상 학습 사례,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실재를 위한 유의점을 포함한다. 단 본 사례는 초중등 수업 사례 연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수업 사례 연구와는 구분됨을 밝힌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을 한 단계 더 실제적 차원에서 접근한 본 논문은 학교 현장에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실행을 위한 이론과 실재를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현직 교사들에게 공유와 고민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탐색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한 학기 동안 수강생들은 다음 학습 과정을 가졌다. 초등교사인 수강생들은 기존에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이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하는 4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했다. 각 단계별 활동 내용은 수강생들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사례는 미술가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를 선택한 A 수강생의 활동 내용이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으로 고흐에 대한 탐색 적절성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A 수강생은 평소 개인적 관심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 가능성, 그리고 A 수강생이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적용 사례 연구 가능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해당 미술가를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 A 수강생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고흐가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삶의 과정과 미술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와 폭력성 그리고 함께 결부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맥락적 갈등 등은 모두 상대적인 탐구의 가치를 가지며, 단편적인 논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A 수강생은 학습자의 인식, 학습 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절성을 재고하였으며 최선의 미술가와 미술작품으로 고흐를 선택했다. 이런 사전 인식과 활동을 전제로 A 수강생의 사례를 살펴본다.

1단계에서 이론적 이해를 위해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모색」(이재영, 2019b) 논문을 함께 살펴보았다. 논문에 제시된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i Cornet)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가의 삶이 그들의 미술 작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술 감상 학습은 이들 관계성에 대한 일차 탐구를 시작으로 감상자의 삶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학습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았다. 그런 다음 위 논문에 소개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p. 77)을 바탕으로 전체 탐색 과정의 특성과 절차를 파악했다.

2단계는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미술가를 중심으로 미술가의 생애를 살펴보는 활동을 수행했다. 미술가의 생애 탐구는 자칫 장황한 생애사 연구가 될 수 있어 일생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삶의 모습, 태도, 가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장면을 조사하도록 안내하였다. 모든 미술작품이 작가의 삶에 대한 투영체라는 점에서 작가 선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삶의 지향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술가의 생애 탐구 자료를 활용해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 미술가의 삶과 작품의 관련성을 학생이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고흐를 선택한 A 수강생은 고흐의 생애 탐구 결과를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세부적 생애보다는 A 수강생이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흐의 삶과 미술작품을 관계 지어 살펴보게 할 정도에서 고흐의 생애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아래 소개하는 조사 내용은 A 교사가 4학년 학생들에게 고흐의 삶을 중심으로 미술작품을 감상시킬 수업 자료 제작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고흐 삶의 전반에 걸친 가치를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자세한 삶의 이야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흐 삶의 전반을 흐르는 고통, 고독, 절망, 그리고 그에 맞서는 고흐의 몸부림과 행복감에 대한 추구 등과 같은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로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흐의 삶을 절망적이고 암울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맞서는 의지와 태도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다. 삶에 대한 탐색은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 삶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또는 전체 수업을 설계하는 의도와 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와 일화는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하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가의 생애와 작품을 관계 지어 살펴보는 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관심과 탐구 조사 학습 여건 및 수업 설계 상황에 따라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 활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 수강생이 조사한 고흐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학습 자료로 투입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A 수강생이 지도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이를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 삶의 사건들은 현재 조사된 내용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표 1> 반 고흐의 생애

반 고흐의 생애	
1853.3.30.	네덜란드 브라만트 지방에서 출생
1869.7.	유명한 미술품 매매점인 구필 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일함
1976.3.	구필 화랑에서 해고됨
1877.5.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공부, 실패
1878.7.	전도사가 되어 벨기에 탄광지역인 보리나주로 감. 종교인들과 마찰 빚고 힘든 생활
1879.	전업화가 결심. 테오의 경제 지원 약속
1880.10.	브뤼셀의 미술학교 입학. 오래 다니지 않음
1881.4.	에텐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감. 인물데생에 몰두
1881.12.	헤이그로 가 안톤 모베에게 미술수업 받음. 본격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
1882.1.	헤이그에 아틀리에를 얻어 정착. 처음으로 수채화, 유화, 석판화 제작
1883.9.	경제적 어려움. 결별. 죄책감. 예술적 공동체 희망. 고독. 다시 가족에게 돌아감
1884.여름.	마르코트 베게만과 사랑. 둘의 관계 끝남
1885.3.26.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
1886.1.	엔트워프의 미술학교에 입학. 신경과민 증세가 심해져 2월에 떠남. 파리로 가서 동생 테오와 함께 살기 시작.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과음과 퇴폐적인 생활을 하여 건강 나빠짐. 인상주의 전시회를 통해 고갱 만남
1888.2.	파리를 떠나 빛과 색을 찾아 아를로 감. 화가 공동체를 꿈꾸며 9월부터 “노란 집”에서 살았음
1888.10.23	고갱이 아를로 찾아와 고흐와 함께 살게 됨
1888.12.23	고갱과의 불화가 심해짐. 고갱과 심하게 다툰 후 자신의 귀를 자름
1889.2.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강제 입원
1889.5.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무솔 요양원에 입원
1889.12.	심한 발작으로 괴로워하다가 고흐는 물감을 삼킴
1890.7.27.	가슴에 총을 쏘서 자살 기도
1890.7.29.	고흐가 죽음. 오베르 묘지에 묻힘

3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수강생이 선택한 미술가의 삶이 해당 미술가의 미술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활동을 했다. 이때 미술작품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작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지 않도록 안내했다. 미술가의 생애 흐름에 맞게 다양한 작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미술작품의 조형적이고 형식적인 특성과 함께 작품의 주제나 작품이 주는 느낌과 정서를 중심으로 미술가의

삶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고흐의 삶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A 수강생은 <표 2>¹⁾에 제시된 미술작품을 살펴봄과 작품과 관계된 고흐의 삶을 정리했다. 삶의 이야기 전개 과정은 작품의 제작 과정 순으로 정리되었다. 살펴본 작품과 정리한 삶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4학년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2단계에서 A 수강생이 이해한 고흐 삶 전반을 가로지르는 고통, 고독, 절망, 그리고 그에 맞서는 고흐의 몸부림 등과 같은 삶의 고민이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해당 작품과 삶의 이야기 파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맞서는 고흐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추가적인 다른 수많은 작품들에서도 유사 주제들에 대한 탐색은 가능하며, 현재 제시된 작품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당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작품이 지속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작품 선정과 삶의 이야기 탐색은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리라 생각된다.

<표 2> 반 고흐의 작품에서 찾아본 그의 삶

작품과 삶의 이야기	
	<감자 먹는 사람들> 81.5×114.5cm, 1885년 4월, 캔버스에 유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슬픔에 잠기고 이 그림을 그렸음. 어두운 색조.
	<꽃병에 꽂힌 열두 송이 해바라기> 91×72cm, 1888년 8월, 캔버스에 유채 고갱과 같이 살게 되면 해바라기로 작업실을 꾸미고 싶은 마음.
	<아름에 있는 고흐의 침실 (나의 방)> 72×90cm, 1888년 10월, 캔버스에 유채 강제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복수, 단순한 구상, 그림자와 음영 무시.

- 1) <표 2>에 제시된 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A 수강생이 조사한 내용이다. 이외 다양한 맥락이나 의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권위적인 설명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 탐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제시이다.

작품과 삶의 이야기	
	<귀에 붓대를 감은 자화상> 60×90cm, 1889년 1월, 캔버스에 유채 고흐와 고갱은 갈등을 겪고, 12월23일 정원 산책을 하는 고갱에게 고흐가 면도칼로 위협, 고흐가 귀를 자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노란집에 돌아온 뒤 그린 것, 테오를 안심시키기 위한 자화상.
	<해뜰 무렵 밀밭에서 수확하는 사람> 73×92cm, 1889년9월 초, 캔버스에 유채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는 이 그림의 소재는 단순하고 아름답음. 흐릿한 인물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 환한 대낮에 발생한 죽음이라 슬픔은 없음. 자신을 자연이 갖는 의미와 같기를 바라며 희망을 가짐.
	<까마귀가 나는 밀밭> 50.5×103cm, 1890년 7월, 캔버스에 유채 고흐는 자살하기 며칠 전에 먹구름 낀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의 모습을 그림. “나는 새장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오, 신이시여, 다른 새들처럼 나에게도 새가 될 자유를 주십시오.”

관점에 따라 2단계와 3단계 활동 순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미술작품에 대한 선행적 감상을 시작으로 관계되는 맥락적 정보 탐색을 진행하면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의 삶을 파악하는 활동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생애에 대한 사전적 조사 작업 결과가 자칫 작품 감상에 선입견이나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생애사에 적절히 해당하는 미술작품이 제한적인 경우도 배제하지 못한다. 자칫 선제적인 생애 연구 활동이 생애 정보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로 전락되는 우려가 존재한다.

핵심적 고려 사항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절대적 순서의 문제로 논의를 단정하기 보다는 두 가지 상반된 순서상의 문제는 두 활동의 핵심적인 활동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작가의 작품과 생애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작품 감상하기는 생애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활동 순위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4단계는 앞서 수행한 미술가의 생애사 자료와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강생이 지도하고 있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탐색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초중등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미술 감상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의 학습 상황을 실제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일례로 기존의 미술 감상 학습 시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 계획을 논의했다. 미술가의 생애에 대한 조사 및 이해 학습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성찰적 반성 활동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실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수강생들은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년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운영 계획과 수업 시간 운영 계획을 재점검하면서 실제적 운영 아이디어를 작성했다.

앞서 언급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이재영, 2019b, p. 77)에는 나의 삶에 투영시키기 예시 활동으로 무심히 바라보기, 공감이나 감정이 입하기, 작품과 관계된 나의 스토리텔링 만들기, 나의 삶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제시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예시에 제시된 활동들을 단계적 접근으로 해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시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이해 활동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활동 내용을 구성했다.

4단계 활동 결과 수강생들이 작성한 활동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사례에는 4단계 활동이 자기관찰하기, 자기표현하기, 작가의 가치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기, 나 표현하기 등과 같은 단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은 앞서 이루어진 작가의 삶과 미술작품 탐색 활동의 연속선에서 전개된다. 수강생들은 전체 학습 과정을 통해 작가 이해, 작품 이해, 자신 이해, 자신 표현(감상 연계 표현 활동), 작품 감상과 같은 큰 흐름으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단계를 도출했으며 <표 3>, <표 5>에 제시된 세부적인 단계 명칭과 활동 내용은 개별적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표 4>, <표 6>과 같이 각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세부 활동별 질문 예시를 작성했다.

<표 3>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단계와 세부 활동 예시 1

단계	세부 활동	세부 내용/ 설명
작가 알아보기	대상 작가의 삶 전체적 조망하기	▶ 작가에 삶 조사하기(작가에 대한 미디어 자료 감상) ▶ 작가의 삶 조사하기 ▶ 작가에 대한 텍스트 읽기
작품 알아보기	작품 설명 활동 작품에서 일관성 찾기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발견하기	▶ 작품 배경 스토리텔링하기 ▶ 작품의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방법 등 알아보기 ▶ 작품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하기 ▶ 대조되는 작품 비교하기(동시대, 같은 주제 등) ▶ 전체 작품의 흐름 살펴보기 ▶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치가 무엇인지 토의하기

단계	세부 활동	세부 내용/ 설명
자기 관찰하기	작품 속 가치에 반응하기 내 삶과 연결하기	▶ 나의 삶 떠올려보기(일기, 사진, 기존 만들었던 작품, 또래 친구 경험담 등) ▶ 작가가 추구한 가치에 대한 나만의 의미 만들기(질문 만들기, 글쓰기, 프리즘 카드, 스토리 보드 만들기 등) ▶ 나만의 가치 발견하기
자기 표현하기	나의 삶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표현하기	▶ 표현 방식 탐색하기 ▶ 작가의 작품 특성이나 주제와 관련해 작품 제작하기 ▶ 전시회 계획하기
감상 공유	감상활동 전시활동	▶ 작품 전시하기(전시회) ▶ 자기 작품 소개하기 ▶ 작품에 대한 감상 공유하기

<표 4>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세부 활동별 질문 예시 1

단계	세부 활동	질문
작가 알아보기	대상 작가의 삶 전체적 조망하기	▶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 작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 작가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졌을까? ▶ 작가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작품 알아보기	작품 설명 활동 작품에서 일관성 찾기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발견하기	▶ 작가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은 무엇인가? ▶ 작품에서 생긴 변화가 무엇일까? 왜 생겼을까? ▶ 작품에 작가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인가?
자기 관찰하기	작품 속 가치에 반응하기 내 삶과 연결하기	▶ 작가의 가치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 작가가 생각한 가치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작가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기 표현하기	나의 삶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표현하기	▶ 너의 가치를 잘 드러낼 표현방법은 무엇일까? ▶ 왜 그런 제목을 지었니? ▶ 표현 의도가 무엇이니?
감상 공유	감상활동 전시활동	▶ 작품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니? ▶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서 찾은 가치는 무엇이니?

<표 5>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단계와 세부 활동 예시 2

단 계	세부내용 설명	세부 활동
작가의 삶으로 들어가기	작가의 생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작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파악하는 단계다.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놓치거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은 읽기자료를 활용하여 토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작가의 생애 스토리텔링(영상, 작품배경으로 한 교사의 언어) ▶ 작가의 생애 <읽기 자료> 분석 - 작가의 행동이나 말을 통한 성격이나 가치관 파악 - 사건이나 사례를 통한 인물의 감정이해
작가, 작품과 만나기	작품을 기본 감상 단계에 따라 살펴본다. 그리고 작가의 생애와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삶의 가치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미술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감정을 표현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가의 생애와 작품 연계 ▶ 작가의 작품 감상 및 형식 분석 ▶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삶의 가치에 대한 토의
작가의 가치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기	작가와 나의 삶의 경험을 비교해보고 작가와 나의 삶의 가치를 연계하여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 작가의 삶과 나의 삶의 경험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투입 ▶ 작가의 가치와 나의 가치 비교 ▶ 나의 삶의 가치 도출
나 표현하기	작가의 표현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의 가치 및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구상하여 작가의 삶을 통해 발견한 나의 가치와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나의 가치 및 감정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구상 및 표현
작품을 통해 소통하기	친구들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의 가치와 감정을 공유하고 작품을 통해 만난 서로를 이해한다.	▶ 전체 작품 감상 ▶ 나의 작품 의도 설명 ▶ 활동 후 나의 소감 발표 및 공유

<표 6>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세부 활동별 질문 예시 2

단 계	활용될 수 있는 질문/발문
작가의 삶으로 들어가기	▶ 어떤 상황/ 기분/ 성격/ 사람이었을까요? ▶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라면? (나라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 작가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건/ 인물/ 계기는?
작가, 작품과 만나기	▶ 작품에서 볼 있는 표현재료/ 방법/주제? ▶ 작품들 간의 일관성 및 변화는? ▶ (작가의 생애와 관련지어)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작가의도)/ 생각했을까? ▶ 작품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삶의 가치/감정은?
작가의 가치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기	▶ 작가와 나는 비슷한 경험/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 나의 작가의 (성향, 생각 등의)비슷한 점/ 다른 점은? ▶ 나는 작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감정은? ▶ 작가의 삶을 통해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가치는? ▶ 나의 삶의 가치는?
나 표현하기	▶ 작가는 자신의 가치/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 하였나요?(작가의 표현방법 탐색) ▶ 나의 삶의 가치/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표현방법이 어울릴까?
작품을 통해 소통하기	▶ 내가 만든 작품은 어떤 감정/가치를 표현하려 했나? ▶ 친구들은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 작가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가치와 감정을 살펴보고 표현해 본 소감은?

4단계에서 구체적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모색할 때, 자칫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이 선택된 미술가의 삶과 작품에서 살펴본 가치를 주입시키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삶을 탐색하고 본받을 점을 찾아보는 도덕 교육이나 위인에 대한 전기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에서 삶의 가치는 분명 학습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4단계 세부 활동 내용과 구체적 질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경험의 유사성 탐색, 둘째, 미술가의 삶과 가치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태도 나누기,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빚대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교를 통한 상대적 이해와

공감적 태도를 지향한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설계 시 탐구할 미술가와 미술가의 삶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의 일상 경험이나 맥락과 비교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술가의 삶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끌어내려면 분명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일상 경험과 상황 속에서 미술가를 살펴볼 수 있는 추체험적 요소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필요로 한다. 공감적 활동이 단순히 유사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이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습 활동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감은 경험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연관될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나 교감 그리고 경험의 확장적 해석이나 적용 등에 의해서 폭넓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미술가의 삶과 동일한 삶에 지나치게 국한시키는 것은 미술과 삶에 대한 학습을 협소하게 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 미술 감상 활동이 조형적 특성에 대한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분석 활동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공감적 이해는 인지적 분석 활동과 함께 풍부한 정서 작용과 반응 그리고 가치 인식을 잘 활용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희의 경우와 같이 삶의 가치가 고통, 좌절, 절망, 아픔과 같은 처절함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더더욱 절실할 것이라 생각된다. 같은 고통, 좌절, 절망, 아픔을 경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공감적 이해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끝나 버릴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험의 동일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간절함, 상황의 절실함,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의 한계, 개인적으로 힘겹게 도전하고 있는 과제 등을 받아들이거나 직면하는 학습자의 정서, 태도, 자기 이해 등과 같이 보다 확장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고갱과의 결별로 귀를 잘라버린 상처와 아픔에 견줄 수 있는 초중등 학습자의 상처와 아픔은 어떤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경험이나 상태와 연결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적 이해는 분명 어린 시절 학습자들이 즐겨 읽었던 우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단순함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고희를 보고 단순히 내가 고희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제한하기 보다는 고희가 처한 상황에서 고희가 느끼는 삶의 태도와 가치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친구와의 결별이 사랑하는 애완동물과의 이별로 전개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물건의 분실이나 소중한 자신의 기억의 소실 아니면 오랜 시간 기다리면 공들인 일들의 잘못된 결과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 공감적 이해는 너무 단조로운 유사성의 원리로만 접근하려 한다면 삶의 가치 탐구는 매우 지엽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 공감적 이해는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이고 소소한 삶의 가치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예술은 삶과 유리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예술을 만드는 것이다”(조광제·김시천, 2008, p. 84).

일상과 연계된 공감적 이해는 학습자들이 삶의 가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삶에 대한 가치 탐구가 너무 거창하고 피상적일 때, 인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교육은 추상적인 철학적 관점이나 원론적인 가치 교육 차원에 머물고 말 수도 있다. 미술 감상 학습이 삶과의 연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 고찰들이 삶의 실제성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류지영(2018)은 미술 감상이 추구하는 철학적 방향성을 언급하며 미술 감상 학습 관점을 삶과의 연계성으로 조직하고 있다. 세부적 미술 감상 내용에는 “삶의 태도와 사고, 정체성, 가치관과 세계관, 관점의 확장과 융합을 삶과 연결하는 문제”가 포함된다(p. 27). 이를 통해 그녀는 미술 감상 학습이 단순히 미술의 외면적 아름다움보다 “철학적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진선미와 같은 미의 본질과 현상으로서의 미술의 의미, 개인의 마음이나 사상과 감정, 이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p. 28)에 대한 학습을 제안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삶에 대한 이해를 “광의의 시각적 리터러시”(p. 29)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런 철학적 관점과 광의의 시각적 리터러시가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미술을 통한 삶의 탐구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술 감상 활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미술 표현 활동은 감상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나 확인 차원에서 간단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은 학습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현 재료, 용구, 방법 선택은 이런 가치 탐색 목적에 종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상한 미술작품에 사용된 재료, 용구,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료, 용구, 방법에 대한 탐색 활동이 수반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해진다.

이처럼 학습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술 감상 후속 표현 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이루어진 감상 후속 표현 활동과는 매우 다른 학습 설계가 요구된다. 미술가의 삶과 작품을 살펴보는 사전 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활동이 미술 감상 활동의 주가 된다면 후속되는 표현 활동은 앞서 이루어진 학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감상한 학습 활동에 대한 이해 확인 차원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므로 그에 준하는 깊이 있는 표현 활동 시간과 체계적 표현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예시 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추구한 삶의 가치를 시각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은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활동만큼이나 표현을 위한 상당한 시간의 학습 활동을 필요로 한다. 표현 활동 시간의

확보, 삶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 용구, 방법 탐색을 위한 학습 여건 확보, 학습자의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미술작품 제작에 요구되는 교수 학습 세부 과정에 대한 고민 등은 기존의 기능이나 모방 중심 표현 활동과는 분명 구분된다.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력 신장을 위한 미술 표현 활동과도 구분된다. 창의성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형식화 할 수 있는 방법 탐색에 필요한 창의성과 적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삶의 가치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조차도 막연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물며 그것을 조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간단하다고 가정할 수는 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삶의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나 이해가 개념적, 추상적, 윤리적, 의지적 수준의 상태라면 이를 미술작품의 형태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제적 상황이나 장면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실험적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삶의 가치를 표현해 보는 활동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표현해 보라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고 빈약하고 추상적인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힘겨운 것이며 심지어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힘든 과정에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이 도움을 주었다면,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과정은 교사의 도움이 절실한 교수 학습 과정일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소개한 사례에서 해결하지 못한 후속 연구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계획과 그에 대한 논의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계획의 실제

살펴본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참고로 하여 수강생들은 실제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계획을 작성했다. 자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지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했다. 전체 학습 계획은 지도 차시 확보를 위해 가능하다면 타교과의 통합적 방식으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통합적 차시 설계 예시와 함께 학습자의 삶의 가치 탐색 단계를 중심으로 작성된 지도안을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가의 생애 탐색, 미술작품으로 미술가의 삶 탐색하기 활동도 주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면상의 문제와 함께 본 논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학습자 자신의 삶의 가치 탐구 부분에 강조를 두고자 한다. 미술가의 생애 탐색이나 미술작품으로 미술가의 삶을 탐색하는 교수 학습 과정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한다.

대상: 초등학교 4학년

통합주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표현하기

통합 교과 및 단원: 4-2 국어.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 8단원. 생각하며 읽어요.
4-2 미술. 7단원. 미술가에게 더 가까이

차시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 주제	학습내용 및 흐름
1	4-2. 국어 4단원	미술가의 생애 알아보기	▶ 미술가의 생애를 알아보기 ▶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며 이야기를 읽어보기
2	4-2. 미술 7단원	다양한 미술작품 만나기	▶ 미술가에 생애에 따른 다양한 미술작품을 알아보기 ▶ 작품 감상 단계에 따라 감상하기
3	4-2. 미술 7단원 4-2. 국어 8단원	학생의 삶 이야기 나누기	▶ 미술가 생애에서 나타난 삶의 가치 이야기하기 ▶ 생각할만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 학생의 삶 이야기 나누기
4~5	4-2. 미술 7단원	자기표현의 작품 만들기	▶ 작품의 쓰임새 고려하기 ▶ 삶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기 (행복 아이템, 마그넷, 에코백 디자인 등)
6	4-2. 미술 7단원	작품 감상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기 ▶ 친구의 감정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있는지 찾아보기 ▶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품을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하기

수업자 의도: 이 단원은 관심 있는 미술가와 미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며, 감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작품과 관련된 이야기, 미술가의 삶과 일화, 미술가가 미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 등을 통해 작품 감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학생들은 미술가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미술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미술가의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에 독서토론과 연관 지어 미술가의 삶을 깊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큰 삶의 맥락을 보면서 학생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삶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꺼내어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사진과 잡지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깊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술가에 친숙해지며 자신이 삶의 이야기를 작품에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차시별 교수 학습 활동:

전체 6차시로 계획한 본 학습 계획은 차시별로 다음과 같은 교수 학습 활동을 포함

한다. 전 차시 수업 지도안을 본 연구에 모두 소개하지 않는 관계로 차시별 교수 학습 활동의 개괄적 내용을 제시한다.

차시	학습주제	교수 학습 활동
1	미술가의 생애 알아보기	▶ 반 고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작가와 작품, 미술관 전시 등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미술가의 생애를 텍스트로 알아보기: 인물의 성격에 따른 사건 변화를 살펴봄, 반 고흐의 편지 중 일부분을 보여주기 ▶ 반 고흐 생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 가운데 인상적인 사건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기 ▶ 미술가의 행동을 살펴봄과 성격과 삶의 모습을 어떠한지 생각해보기: 반 고흐 행동을 보며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기 ▶ 핫시팅(뜨거운 의자)을 통해 반 고흐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 반 아이 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함
2	다양한 미술작품 만나기	▶ 미술가의 생애에 따른 작품 경향을 살펴봄(시대별로 조금씩 작품이 경향성이 변화함을 알게 함) ▶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기 ▶ 대표적인 작품을 보며 작품 제목, 표현재료와 표현방법, 작품의 주제 등을 생각해보게 함
3	학생의 삶 이야기 나누기	▶ 미술가 생애에서 나타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봄. 반 고흐 삶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삶에 대한 극복 의지’와 ‘희망’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함 <질문> - 나는 언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정말 힘들 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는가? - 희망(꿈)을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가?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 학생의 경험을 떠올리며 질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눔 ▶ 인생 수직선 가운데 특정 날짜를 표시하고 힘들었거나 행복한 경험을 적음 ▶ 일기를 사전에 준비하게 하여 과거의 일을 잘 회상하도록 함 <활동> - 경험 속의 나, 몽타주 만들기: 내 사진에 행복 또는 힘들었던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붙이기 - 나를 스토리텔링하기: 주인공이 된 내가 4컷 만화 속에서 행복 또는 힘들었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기 - 사진 연장하여 그리기: 내가 있는 사진을 연장하여 배경을 그리기

차시	학습주제	교수 학습 활동
4~5	자기표현 작품 만들기	▶ 작품을 만들 때 앞으로의 쓰임새를 고려하여 제작할 수 있음 <활동 예시> - 픽토그램으로 소통하기: 그림이나 글자를 통해 뜻을 전달하기 - 나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 드림캐처 만들기: 나의 상징 재료를 모아 힘든 일을 극복하는 힘 기르기 - 타일무늬 만들기: 행복을 상징하는 무늬를 그려서 반복적인 패턴 만들기 - 폐품으로 화분 만들기: 음료수 병을 석고봉대를 감아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아크릴로 채색을 한 다음 화분을 만들기, 채색을 할 때는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학생의 삶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물건으로 쓰이도록 함
6	작품 감상하기	▶ 작품에 대한 설명, 작품을 표현한 배경, 활동 후 느낀 점을 발표하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 실생활에서 작품을 사용하기 위한 마음 다지기

본시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

단원	7. 미술가에게 더 가까이	차시	3/6
학습 주제	작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학습 목표	작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준비물	사진, 일기, 잡지, 도화지 등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반응 형성	동기 유발 공부할 문제 확인 학습 활동 안내	◆ 학습동기 유발하기 - 반 고흐의 삶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반 고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삶과 관련된 질문 나누기 <활동2>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기 <활동3> 나의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4	※ 다양한 생각을 수용한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반응 명료 화	반 고흐 삶과 연관 짓기	◆ 활동1. 삶과 관련된 질문 나누기 - 반 고흐 삶과 연관하여 생각할 만한 질문을 한다. - 나는 언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정말 힘들 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는가? - 희망(꿈)을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가?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5	• ppt, 질문 상자, 포스트잇, 잡지, 도화지 등
반응 심화	삶 이야기 나누기	◆ 활동2.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기 - 인생 수직선 가운데 특정 날짜를 표시하고 힘들거나 행복한 경험을 적는다. - 칠판에 붙인 포스트잇을 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눈다. - 학생의 삶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며 발표한다.	8	※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는 추가 발문한다.
	삶을 시각화 하기	◆ 활동3. 나의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선택 활동> - 경험 속의 나, 몽타주 만들기 - 나를 스토리텔링하기 - 사진 연장하여 그리기	20	• 인생 수직선 학습지, 학생 사진, 잡지, 신문, 도화지 등 ※ 사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나를 표현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정리 및 발전	정리	◆ 정리하기 - 우리의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3	※ 생활 속에서 유용성 있는 작품을 조사하도록 한다.
	차시 예고	◆ 차시 예고하기 - 작품의 쓰임새를 고려하여 삶이 나타난 작품 만들기를 안내한다.		

학습 자료:

삶과 하나 되는 작품 7. 미술가에게 더 가까이 - 우리의 삶 이야기 나누기

1. 반 고흐 삶과 연관하여 아래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 나는 언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정말 힘들 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는가?
- 희망(꿈)을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가?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 2가지 질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질문을 선택합니다. 질문에 대한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고 칠판에 붙여 봅시다.

2. 삶 수직선 가운데 특정 날짜를 표시하고 힘들거나 행복한 경험을 적어 봅시다.

★나 ()의 11살 인생 수직선★

행복 했 던 일	나 이											
		1	2	3	4	5	6	7	8	9	10	11
힘들 었 던 일												

3. 우리의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봅시다. 선택 활동 중에 1개를 선택하거나 다른 활동을 해도 됩니다.

<선택 활동>

- **경험 속의 나, 몽타주 만들기**
내 사진에 행복한 일 또는 힘든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붙여 봐요. 잡지나 신문에서 오린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을 모아 내 사진 위에 얹으면 돼요. 나의 감정이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면 좋지요.
- **나를 스토리텔링하기**
주인공이 된 내가 만화 속에서 행복한 일 또는 힘든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4컷 만화의 각 그림이 연결되게 그림만 그려볼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을 모아 4쪽으로 이루어진 스토리텔링북을 만들어 연결해요.
- **사진 연장하여 그리기**
내가 있는 사진을 연장하여 배경을 그려볼 거예요.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친구나 가족, 동물 등 나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게 그리면 돼요. 사진의 배경은 상상 속 장면도 좋아요.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계획에 대한 논의

제시한 예시 활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본시에 앞서 계획된 전시 학습들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학습자들은 고희의 작품을 그의 삶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보자.

우선 본시에 제시된 3가지 활동은 삶의 이야기 탐색에 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활동1> 삶과 관련된 질문 나누기는 고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고희의 삶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배정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앞서 설명한 공감적 이해를 일상적 차원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활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제시된 것과 같은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학습자들이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 자신의 예시적인 이야기나 학급에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구체적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 영상, 텍스트 자료가 있다면 질문의 출발점으로는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처와 희망에 관련한 질문이 가지는 예민한 부분을 배려하여 지나친 경험 공유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활동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상처에 대한 부분은 학급에서 소통되기 이전에 교사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삶의 가치 탐색이 자칫 지나친 개인사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상처를 극복한 희망적 메시지를 추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하여 희망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과 교사의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미술 수업은 미술에 대한 기존의 학습 준비 외에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학습자를 대하는 교사의 성숙하고 배려 깊은 자세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학습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학습자들이 배려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긍정적 삶의 자세와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활동 2>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누기는 인생 수직선 작성하기 학습지를 활용해서 이루어진다. 삶의 이야기를 힘들거나 행복한 순간으로 함께 고민해 보게 하는 것은 실제 삶의 복잡성과 연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생 수직선 작성하기에 앞서 고희의 생애를 가지고 고희의 인생 수직선 작성하기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고희의 삶과 작품을 지나치게 암울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보게 하는 학습 과정으로 전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3> 나의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제시된 3가지 선택 활

동은 나를 탐색하는 활동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활동1>, <활동2>, <활동3>을 계획된 시간에 모두 완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 결국 선택 활동은 자칫 피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단조로운 활동에 머물 우려가 발생한다.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은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표현 활동의 주요 주제로 심도있게 구체화시켜 보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서 기존의 사진을 활용해 간단한 몽타주 제작, 사진 속 장면 연장해 그리기 활동을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성된 결과물이 학습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미술작품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표현 형식의 문제와 함께 표현 주제와 가치에 대한 고민과 집중이 요구된다. 소개된 사진이나 잡지 활용 및 4컷 만화그리기 등은 형식적 적합성보다는 학생들과의 일상적 거리나 정서적 친근감을 고려하여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상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추구가 가능한 대안적 표현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학습자들은 분명 자신이 살펴본 미술작품이 미술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있는 창작물인가를 학습하고 느낄 것이다. 같은 강도의 노력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미술 표현 활동이 가능한 수업 설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삶의 가치라는 것이 지니는 모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세부적이고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학교 미술교육 현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술교육의 주요 요소인 미술가, 미술작품, 학습자는 모두 삶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유기적인 학습 구조로 엮여야 한다. 미술가의 삶을 반영하는 미술작품은 단순한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사색과 고민을 제공한다. 기존의 미술 수업이 추구한 교육목표가 정말 학습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인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의문을 통해 우리는 기존 미술 수업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서 좀 더 구체성을 지닌 미술 감상 학습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 문화학습이나 인문학적 가치라는 큰 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실제 현장 여건과 학습자를 고려해서 구체적 수준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작가의 삶을 탐구하고, 그들의 다양한 작품을 삶과 관계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적 수업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시도한 수업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고민과 구체적 교수 학습 자료 및 수업 전개를 위한 고민거리는 남겨진 과제이다. 본 논문에 제시한 수업 사례도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 측면이나 학습자의 내면적 삶의 가치 추구의 효과성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런 지향점을 향한 방향 제시 역할은 하리라 생각한다.

주.

1. 본 논문에 제시된 교사들의 활동 내용은 2019년 00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지도방법연구 과목 수강생인 고지희, 남혜원, 박경애, 서혜진, 유리수, 이예솔, 이혜정, 정아영, 최경정, 최은혜 선생님의 강의 중 활동 내용 일부입니다.

참고문헌

- 김사라 (2018). 펠드만 감상의 대안을 찾아서.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9(3), 81-112.
- 김수진 (2019). 구성주의적 감상 교육에서 “주제”의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20(2), 109-135.
- 김창식 · 이재영 (2007). 미술과 감상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연구: 포스트모던 조소작품 감상과 창의력 신장의 문제.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8(2), 101-126.
- 류지영 (2018). *미술감상: 중층적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구축*. 파주: 교육과학사.
- 박경애 (2015). 펠드만 법칙 미술감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3), 19-38.
- 백윤소 (2018). 미술 비평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펠드먼 비평 모델을 넘어.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9(2), 95-115.
- 원영미 (2016). 질문지와 대화법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감상교육 방안.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7(1), 127-149.
- 이미정 (2018).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이 방향 탐색.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9(4), 71-91.
- 이지연 · 강주희 (2018).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미술 감상 및 비평 교육의 방법론 탐구.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9(2), 73-94.
- 이재영 (2012). 인문학적 접근으로 바라본 시각문화미술교육. *미술교육논총*, 26(3), 1-22.
- 이재영 (2014). 인문학적 가치 탐구를 위한 미술교육.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5(2), 99-120.

이재영 (2015). 시각 이미지의 정치성과 비평적 담론: 인문학적 접근을 위해.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4), 17-37.

이재영 (2016).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의 변화 모색.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7(4), 1-17.

이재영 (2019a).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 감상 학습 방안 연구: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20(2), 69-92.

이재영 (2019b).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모색: 미술가의 삶 속에서 작품 들여다 보기.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21(2), 59-83.

조광제 · 김시천 (2008).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Knobler, N. (1980). *The visual dialogue: An introduction to the appreciation of art*.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Abstract

Life Value Centered Appreciation of Art: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Life and Their Artworks

Jae-Young L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pon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the method of art appreciation emphasizing investigation into learner’s life”, this follow-up research involves more practical ideas and addresses further discussion in the same research direction. As humanistic value of art education catches more attention,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life becomes an essential core of art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s. Recent research into the goal of art education reaches a consensus showing that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is undebatable. Practical research, however, is still tardy. Therefore, this article shares a case study pursuing more practical ideas of how to organize and manage art lessons in a way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tory of artists, artworks, and life story of learners. Several graduate students joining in a graduate program in art education at 00 university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to this case study. The result of this art program hints us a practical example of life centered appreciation of art lesson. Furthermore, this result is expected to help art teachers conduct better practices.

논문접수 2020. 10. 10	심사수정 2020. 10. 29	게재확정 2020. 11. 03
-------------------	-------------------	-------------------